

포털 뉴스 기사 분석을 통한 국가 간 관계 변화 추이 연구*

- 체코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nge of Relation between Countries through Analysis of Portal News Articles: Focusing on the Czech Republic

김진묵 (Jinmook Kim)**

목 차

- | | |
|----------|------------|
| 1. 서론 | 4. 분석 결과 |
| 2. 현황 조사 | 5. 결론 및 제언 |
| 3. 연구 방법 |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포털 뉴스를 통해 보도된 특정 국가(체코)에 대한 기사 내용을 기간별로 분석해봄으로써 우리나라와 체코와의 분야별 관계 변화 추이를 고찰해 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국내 포털 사이트 중 하나인 네이버 뉴스 검색을 통해 1990년부터 2019년 3월 31일 현재까지 체코에 관하여 보도된 뉴스 기사를 분석하였다. 1990년부터 5년 단위로 6개의 기간을 설정하여 각 기간별로 200개씩의 체코에 관한 뉴스 기사 총 1,200건을 4개 분야(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교육)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 및 문화 분야 기사 건수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주제의 변화 범위 또한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에서는 양국 간의 보다 긴밀한 관계 구축을 위한 분야별 협력 증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trend in the change of relation between countries (Czech and Korea) through analysis of portal new article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we analyzed news articles about Czech from 1990 to March 31st, 2019. We divided it into 6 periods by every 5 years, reviewed 200 news articles for each period totaling 1,200 news articles, and categorized them into 4 categories by subject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and educations).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e subject of society and culture represented the largest proportion of all news articles. We also found that the range of changes in the sub-categories of society and culture occurred most extensively. We concluded the paper with several suggestions that could promot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zech.

키워드: 네이버 뉴스, 기사 분석, 체코, 국가 관계 변화, 협력 증진

Naver News, Article Analysis, Czech, Change of Relations between Countries, Promoting Cooperation

* 본 연구는 2017학년도 강남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임.

** 강남대학교 산업데이터사이언스학부 부교수(kjinmook@kangnam.ac.kr)

논문접수일자: 2019년 4월 22일 최초심사일자: 2019년 5월 13일 게재확정일자: 2019년 5월 16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2): 159-178, 2019. [http://dx.doi.org/10.4275/KSLIS.2019.53.2.159]

1. 서론

뉴스의 사전적 의미는 '신문, 라디오, TV를 통해 보도된 새로운 사건에 관한 정보'(Cambridge Dictionary 2019)이다. 그러므로 뉴스는 특정 시기에 어떤 지역 또는 나라에서 발생한 새로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뉴스의 정의 및 역할에 비추어볼 때 뉴스 기사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시기별로 특정 지역(또는 나라)의 거주민(또는 국민)들이 가졌던 관심사를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2002년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국에서 개최되었던 FIFA 월드컵은 스포츠는 물론이거니와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교육 등 대한민국에 관한 수많은 뉴스를 월드컵 기간 및 전후에 걸쳐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는 공식적인 외교관계(즉, 정치적 관계)와 더불어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을 통한 경제적 관계, 스포츠, 예술, 관광 등 국민들 간의 공식·비공식 교류를 통한 사회 및 문화적 관계, 유학, 연수, 직업훈련 등 교육 기관을 통한 교육적 관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로 전 세계 다른 국가와 외교적 관계를 수립해 왔다. 그 중, 체코공화국(이하 체코)과는 1990년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그 이후 정치 분야를 포함한 경제, 사회 및 문화, 교육 등 타 분야에 이르기까지 상호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오고 있다.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정치적 관계 격상, 무역을 통한 상호 교역량 증대, 관광 등을 통한 방문객 수의 급증 등이 그 예이다.

이렇듯 서로 다른 두 나라 간 협력 관계의 지속적 발전은 그 과정 속에서 상호 간의 관심을 증대시키게 되고, 이는 상대국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기 위한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뉴스 생산으로 이어지게 되리라 추측해 볼 수 있다. 실제, '체코'라는 검색어를 사용하여 네이버 뉴스 검색을 수행해 본 결과 1990년 한 해 동안 총493건에 불과했던 뉴스 기사가 2000년 총604건, 2010년 총8,200건, 2018년 총24,266건으로 큰 폭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추측을 입증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증거라 할 수 있다.

양국 간의 협력관계 발전은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기 위한 뉴스 기사의 수적인 증가와 더불어, 기사 내용 측면에서도 주제 분야의 다양화를 가져왔으리라는 것 또한 추측해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동유럽권에 속했던 체코의 경우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우리에게 친숙한 유럽권 국가들에 비해서 과거 상대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의 교류가 이루어 졌던 것이 사실이다. 양국 간 공식 외교관계가 수립된 1990년에는 정치 관련 뉴스 기사가 주를 이루었다면, 네이버 뉴스 검색결과 최근 들어 경제, 사회, 예술, 여행,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뉴스 기사가 생산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두 나라 간의 협력 관계 발전은 상대방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이는 뉴스 기사의 수적인 증가 및 기사 내용의 주제 분야 다양화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등 체코에 대한 우리 기업의 활발한 투자,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원전 수주 활동, 연간 42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 수의 급증 등 체코에 대한 우리의 관심 및 교류가 증대하고 있다. 양국 간 관계는 과거와 현재의 협력 관계 및 그 변화 추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할 때 보다 상호 호혜적이고 발전적인 관계 확대가 가능해 진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 체코와의 공식적 외교관계 수립 이후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된 체코에 관한 뉴스 기사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체코와 우리나라 간의 관계 변화 추이를 관찰하고 향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발전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2. 현황 조사

서로 다른 두 나라 간의 관계 발전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체코와의 협력관계 현황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 양국 간의 협력관계 분야를 4개 범주(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교육)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 현황을 조사하였다.

2.1 정치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 분리된 체코의 공식 명칭은 체코공화국(Czech Republic)으로

수도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프라하(Praha)이다. 면적은 78,866km²(한반도의 1/3), 인구는 2018년 3월말 기준 약1,060만 명, 공식 언어는 체코어를 사용하고 있다(외교부 홈페이지 2019).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를 가미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이다.

우리나라는 체코와 1990년 3월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이후, 2011년 한-EU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2014년 한국과 체코를 포함함 비셰그라드 4개국¹⁾ 외무장관회의, 2015년 2월 전략적 동반자 관계²⁾ 수립, 수교 이래 수차례에 걸친 양국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상호 방문 등 정치 분야의 협력 관계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2.2 경제

체코의 주요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 GDP 2,157억불, 1인당 GDP 20,368불, 무역규모 3,283억불(수출 1,718억불, 수입 1,565억불), 전년 대비 경제성장률 4.29%, 그리고 실업률은 2.89%를 기록했다(외교부 홈페이지 2019).

〈표 1〉은 2009년부터 2018년 까지 최근10년 동안의 양국 간 연간 무역량 통계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2009년 11억 8백만 달러에 불과했던 무역량이 2018년 33억 1천 6백만 달러로

1) 비셰그라드 그룹 또는 비셰그라드 4국은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4개국의 지역 협력체로서 1991년 2월 헝가리 비셰그라드에서 열린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세 나라 간의 정상회담에서 창설되었다. 이후,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가 해체되면서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각각 회원국이 되었으며 2004년 5월 유럽연합(EU)에 가입하였다(Visegrad Group 홈페이지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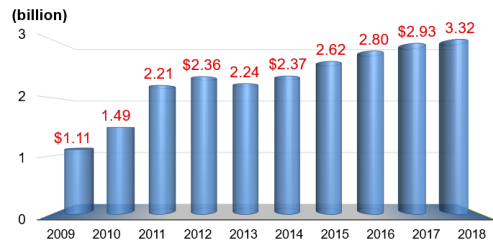
2) '전략적 동반자관계'란 양국 간 평화 모색, 역내 문제는 물론 국제 현안과 대외적 전략을 함께 논의하며 협력하는 단계로서 우리나라는 EU, 체코, 러시아, 인도, 멕시코 등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고 있다(서울신문 2010; 도중윤 2016).

약3배 정도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체코에 대한 수출 규모는 2009년과 2013년을 제외하고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특히 2010년과 2011년 두 해는 전년 대비 각각 51.0%, 47.0%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이는 2006년 체코 현지 현대차생산법인 설립, 2011년 7월 한-EU FTA 체결, 2013년 대한항공 진출, 2014년 넥센타이어, 현대모비스 투자계약 체결 등 활발한 투자 및 기업 활동 영향을 받았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다(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2019). 수입 규모는 2010년을 전후로 감소세를 보이다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과 2019년은 각각 15.6%, 20.7%로 비교적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출입 품목에 있어서도 다변화하는 추세이며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부품, 원동기, 보조 기억장치, 기계류, 철강 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전자응용기기, 전자현미경, 펌프, 자동차 부품, 조립식 장난감, 플라스틱 튜브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다(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2019).

최근 10년간 양국 간 무역량 증감의 변동 추이는 <그림 1>에 제시된 그래프를 통해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대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림 1> 연간 상호 무역량 변화 추이

2.3 사회 및 문화

‘사회’는 공통의 목적, 이해관계, 신념에 기반한 개인들의 집합체이다(Merriam - Webster 2019). 그렇기에 서로 다른 사회는 정치, 경제, 문화, 제도적으로 차별성을 갖게 된다. 서로 다른 사회의 ‘문화’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사상, 의상, 종교, 의례, 법이나 도덕 등의 규범, 가치관과 같은 것들을 포괄하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Jary and Jary 1991). 생활양식으로서의 문화는 대체로 음악, 미술, 문학, 연극, 영화와 같은 예술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Williams 1976). 이 연구에서 ‘사회 및 문화’는 예술, 음악, 문학, 영화, 스포츠, 관광, 종교, 사회 이슈 등을 포괄하는 생활양식으로서의 문화로 정의 하였다.

<표 2>와 <표 3>에서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 동안의 양국 간 상호 방문객 수

<표 1> 양국 간 연간 무역량 통계

(단위: million \$)

구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수출	규모	771	1,165	1,713	1,786	1,682	1,813	2,040	2,176	2,212	2,452
	성장률(%)	-6.9	51.0	47.0	4.3	-5.8	7.7	12.6	6.6	1.7	10.8
수입	규모	337	329	501	572	557	558	577	619	716	864
	성장률(%)	-14.5	-2.5	-52.5	14.2	-2.6	0.1	3.4	7.3	15.6	20.7
총 계		1,108	1,494	2,214	2,358	2,240	2,371	2,617	2,795	2,928	3,316

(출처: 대한무역협회)

〈표 2〉 인바운드: 연간 한국 방문 체코인 수

(단위: 명)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6,307	6,589	7,103	8,353	11,903	11,796	9,886	10,510	10,922	10,759

(출처: 한국관광공사)

〈표 3〉 아웃바운드: 연간 체코 방문 한국인 수

(단위: 명)

'12	'13	'14	'15	'16	'17	'18
129,000	150,000	192,750	257,000	322,108	417,438	41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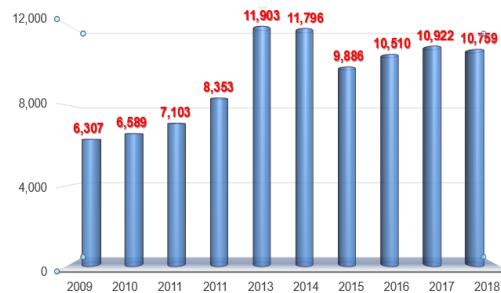
(출처: Czech Tourism Organization)

를 제시하였다. 사회 및 문화적 측면에서의 양국 간 교류·협력의 정도를 하나의 척도를 사용하여 정량적으로 측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사회 및 문화적 교류는 대개 물질 교류 보다는 인적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양국 간 상호 방문객 수의 증감을 살펴봄으로써 그 협력의 정도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정치·경제 분야의 협력 강화 및 확대와 더불어 양국 간의 상호 방문객 수가 어느 정도 증가(또는 감소)했는지 그 추이를 살펴보았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을 방문한 체코인의 수는 2009년 6,307명에서 2018년 10,759명으로 전체 방문객 수는 많다고 할 수 없으나 2012년 일만 명을 상회한 이후 그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체코를 방문한 한국인 수³⁾는 2012년 이후 2017년까지 매년 비교적 큰 폭의 증가를 해왔음을 〈표 3〉을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2017년 체코를 방문한 한국인 방문객 수는 약42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만 명가량 증가하였으며 이는 28.2%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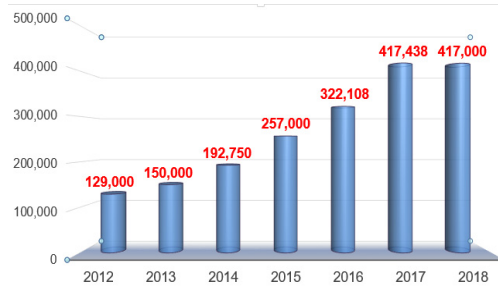
는 비교적 큰 비율의 증가를 의미한다. 체코를 방문한 외국인 국적별 순위에서도 전체 8위, 아시아에서는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기록이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그림 2〉와 〈그림 3〉에 제시된 연간 상호 방문객 변동 추이 그래프를 통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한국을 방문한 체코인 수(인바운드)는 2013년 11,903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다소 감소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소폭이나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2〉 참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체코를 방문한 한국인 수(아웃바운드)는 통계로 확인



〈그림 2〉 인바운드 방문객 수 변동 추이

3) 우리나라는 2006년 7월 이후 출국카드 작성 폐지로 인해서 출국자의 행선지를 파악할 수 없다. 〈표 3〉에 제시된 통계는 체코관광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였으며 2012년 이전 통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림 3〉 아웃바운드 방문객 수 변동 추이

된 2012년 이후 크게 증가해 왔으며, 2009년 129,000명에서 2017년 417,438명으로 약3.2배 이상 증가 하였다(〈그림 3〉 참조).

2.4 교육

위에서 논의한 현황조사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양국 간의 정치·경제·사회 및 문화 분야 협력은 단기적으로 소강 또는 감소를 보였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지속적으로 강화 또는

증대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최근 10년 동안의 양국 간 교육 분야 협력은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뚜렷한 증가(또는 감소) 추세를 확인하기 어렵다.

교육 분야 협력의 보다 자세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표 5〉와 〈표 6〉에서는 각각 과정별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유학생 현황을 제시하였다.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모두 연간 100명 안팎의 유학생 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어학연수, 기타연수(교환학생, 단기연수생, 비학위 포함) 등 단기연수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총242명의 아웃바운드 유학생 수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242% 증가를 보인 2017년의 경우에도 그 중 194명(80.1%)이 어학연수생으로 단기연수의 형태였음을 〈표 6〉을 통해 알 수 있다. 〈표 6〉에 정리한 아웃바운드 유학생 통계의 경우, 2016년 이후는 석사와 박사를 구분하여 파악할 수 없었기에 통합한 통계 수치를 제시하였다.

〈표 4〉 연간 상호 유학생 현황

(단위: 명)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인바운드	37	59	40	56	60	74	57	70	76	67
아웃바운드	120	71	61	48	114	74	89	100	242	57

(출처: 교육부)

〈표 5〉 인바운드: 한국 대학의 과정별 체코인 유학생 현황

(단위: 명)

	학부	석사	박사	어학연수	기타	총 계
2014	3	6	2	7	56	74
2015	0	3	1	4	45	57
2016	4	3	0	6	57	70
2017	2	6	1	4	63	76
2018	3	6	1	8	49	67

(출처: 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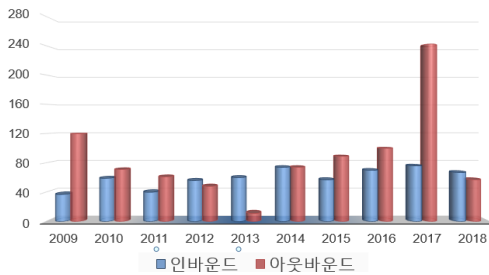
〈표 6〉 아웃바운드: 체코 대학의 과정별 한국인 유학생 현황

(단위: 명)

	학부	석사	박사	어학연수	기타	총 계
2014	20	4	12	5	33	74
2015	21	8	11	1	48	89
2016	22	22		29	27	100
2017	22	26		194	0	242
2018	29	27		0	1	57

(출처: 교육부)

이처럼 양국 간 교육 분야 교류 및 협력은 타 분야와 달리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지 않고 해마다 증감을 거듭해 왔으며 그 숫자도 100명 전후에 불과했다. 이는, 인도(899명, 2015년), 러시아(895명, 2015년), 멕시코(260명, 2015년) 등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타 국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해마다 증감을 거듭하는 불명확한 변동 추이는 〈그림 4〉에 제시된 그래프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림 4〉 연간 상호 유학생 수 변동 추이

3. 연구 방법

3.1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1990년 이후 우리나라 언

론 보도에 나타난 체코에 관한 뉴스 기사의 양(건수)과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양국 간 교류·협력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교육 등 분야별로 협력 강화를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RQ)를 설정하였다.

- RQ 1. 양국 간 정치 분야 뉴스 기사의 증가 추이와 그 내용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 RQ 2. 양국 간 경제 분야 뉴스 기사의 증가 추이와 그 내용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 RQ 3. 양국 간 사회 및 문화 분야 뉴스 기사의 증가 추이와 그 내용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 RQ 4. 양국 간 교육 분야 뉴스 기사의 증가 추이와 그 내용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3.2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데이터 수집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검색포털 중 하나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네이버 뉴스’를 이용하였다. 네이버 뉴스는 특정 언론사가 아닌 다수의 언론 매체들로부터 뉴스 기사를 기간별로 망라하여 수집가

능하다는 자료 수집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였다.

1990년부터 5년 단위로 기간을 설정하고, '체코'라는 검색어를 사용하여 뉴스 기사 검색을 수행하였다. 주지한 바, 체코슬로바키아는 199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었다. 분리 전인 1990년부터 1992년까지 2년의 기간 동안은 체코에 관한 뉴스 검색을 위해서는 '체코슬로바키아'라는 검색어를 추가로 사용하여 검색을 수행하였으나 음절 단위로 단어를 탐지하는 검색엔진의 특성상 이는 불필요하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검색결과 1990년부터 1994년까지 5년 동안 보도된 체코 관련 뉴스 기사는 모두 1,532건 이었다. 이후 1995년~1999년 1,488건, 2000년~2004년 7,699건, 2005년~2009년 37,745건, 2010년~2014년 53,286건, 2015년~2019년 3월 31일 85,324건이 검색되었다(〈표 7〉 참조).

일반적인 포털 검색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네이버 뉴스의 검색 결과는 적합도 순으로 페이지 당 10건의 기사가 제시된다. 검색 결과는 적합도 순서로 배열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표 7〉에서 구분한 6개의 기간별로 각각 200건의 기사 제목 및 내용을 수작업으로 분석하였다. 검색된 뉴스 기사 중 체코와 관련이 없거나 적은 기사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기간별로 체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200건씩, 6개의 기간 총1,200건의 기사를 분석하였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 현황을 요약한 것이 주 내용인 기사에서 체코 관련 수치가 여러 나라의 수치와 함께 단순 나열된 경우는 직접적 관련이 적다고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중복된 기사 또는 그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유사한 기사는 모두 1건으로 간주하였다.

〈표 7〉 기간별 뉴스 기사 검색 건수

기간	건수
1990.01.01 ~ 1994.12.31	1,532 (0.8%)
1995.01.01 ~ 1999.12.31	1,488 (0.8%)
2000.01.01 ~ 2004.12.31	7,699 (4.1%)
2005.01.01 ~ 2009.12.31	37,745 (20.2%)
2010.01.01 ~ 2014.12.31	53,286 (28.5%)
2015.01.01 ~ 2019.03.31	85,324 (45.6%)
총 계	187,074

수집된 개별 뉴스 기사의 내용 분석을 위해서 4개의 주제 카테고리(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교육)로 범주화 하였다. 4개의 카테고리는 2018년 10월에 진행된 파일럿 스터디를 통해서 사전에 범주화 하였다. 개별 뉴스 기사의 분석 과정에서 각각의 주제 카테고리는 다시 몇 개의 소주제 카테고리로 상향식으로 범주화하였다. 이를 통해, 1990년 이후 기간별로 우리나라 포털 뉴스에 보도된 체코에 관한 기사 내용의 주제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그 추이를 살펴 보았다.

4. 분석 결과

〈표 8〉은 기간별로 4개의 주제 카테고리, 즉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교육 분야별 뉴스 기사 건수를 정리하였다. 1990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약30년의 기간 동안 네이버 뉴스를 통해 보도된 뉴스 기사의 주제별 건수는 사회 및 문화(613건, 51.1%), 정치(285건, 23.8%), 경제(280건, 23.3%), 교육(22건, 1.8%)

〈표 8〉 기간별 뉴스 기사 주제별 분류: 전체

(단위: 건)

	90 ~ 94	95 ~ 99	00 ~ 04	05 ~ 09	10 ~ 14	15 ~ 19	총 계
정치	67 (33.5%)	56 (28.0%)	34 (17.0%)	55 (27.5%)	36 (18.0%)	37 (18.5%)	285 (23.8%)
경제	33 (16.5%)	26 (13.0%)	14 (7.0%)	101 (50.5%)	56 (28.0%)	50 (25.0%)	280 (23.3%)
사회 및 문화	99 (49.5%)	118 (59.0%)	146 (73.0%)	44 (22.0%)	97 (48.5%)	109 (54.5%)	613 (51.1%)
교육	1 (0.5%)	0 (0.0%)	6 (3.0%)	0 (0.0%)	11 (5.5%)	4 (2.0%)	22 (1.8%)
총 계	200	200	200	200	200	200	1,200

의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및 문화 분야의 뉴스 기사가 전체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1.8%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는, 양국 간 교육 분야 교류·협력이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음을 의미하는 하나의 증거라 할 수 있으며, 앞의 '2.4 교육'에서 논의한 양국간 교육 분야 교류·협력 현황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정치와 경제 분야는 각각 23.8%, 23.3%로 거의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정치와 경제 분야 교류·협력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있으며 사회 및 문화, 교육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몇 가지 주목할 점으로는 첫째, 90~94년은 정치 분야 뉴스 기사가 67건(33.5%)으로 타 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는 사실이다. 위의 '2.1 정치'에서 논의한 정치 분야 현황에서와 같이, 이 기간은 우리나라와 체코 간 공식 외교관계 수립(1990년), 체코 슬로바키아로부터의 분리(1993년) 등 정치적 이정표가 될 만한 이벤트가 많았던 기간이었다.

둘째, 00~04년의 경우, 사회 및 문화가 146건으로 전체 200건 중 73%를 차지하였다. 이 기간 동안 2002년 월드컵, 유로 2004 등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스포츠 관련 이벤트가 많았던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05~09년의 경우 사회 및 문화 분야 뉴스 기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다른 기간들과는 달리, 경제 분야의 뉴스 기사가 101건(50.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44건(22.0%)을 기록한 사회 및 문화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비중이며, 이 기간은 앞의 '2.2 경제'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두산중공업 등 우리 기업의 체코 투자 및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 졌던 시기로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10~14년, 15~19년은 이전의 기간들과 유사한 통계를 보였으며 특별히 주목할 점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기간 별로 네이버 뉴스에 나타난 뉴스 기사 분석을 통해서 양국 간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교육 분야의 교류·협력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해 왔는지를 유추할 수

있었다. 위에서 분석한 4개의 주제(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교육)는 매우 광범위하여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졌는지 또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각각의 분야별로 다시 몇 개의 소주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표 9〉, 〈표 10〉, 〈표 11〉, 〈표 12〉 참조).

4.1 정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0년 공식적인 외교관계 수립 이후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었다. 1994년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하벨 총리가 체코 총리로서는 최초의 방한을 하는 등 1990년대에는 정치 관련 뉴스거리가 많았다. 그 결과 90~94년, 95~99년 두 기간 동안의 정치 분야 뉴스가 각각 67건(33.5%), 56건(28.0%)으로 다른 기간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8〉 참조).

구체적으로는 두 기간 모두 정계 인사 방문/동정, 정치 현안 관련 뉴스 순으로 기사 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9〉 참조). 1990년 이후 2019년 3월 31일까지 전체 기간을 살펴보면 정계 인사 방문/동정(108건, 37.9%), 정치 현안(75건, 26.3%), 협정/조약 체결(37건, 13.0%), 군사 및 안보(36건, 12.6%), 정치 관련 회의/포럼/행사(20건, 7.0%), 기타(9건, 3.2%)의 순으로 뉴스 기사 비중이 높았다.

〈표 9〉에서 주목할 점은, 00~04년 기간의 경우, 정계 인사 방문/동정의 비중이 50%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건수로는 그 기간 정치 분야 총 기사 건수 34건 중 17건으로 다른 기간에 비해서 적은 편임을 알 수 있다. 15~19년은 정계 인사 방문/동정이 24건으로 64.9%라는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2018년)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체코 방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표 9〉 기간별 뉴스 기사 주제별 분류: 정치 분야

(단위: 건)

		90 ~ 94	95 ~ 99	00 ~ 04	05 ~ 09	10 ~ 14	15 ~ 19	총 계
정치	정치 현안	17 (25.4%)	17 (30.4%)	7 (20.6%)	18 (32.7%)	12 (33.3%)	4 (10.8%)	75 (26.3%)
	정계 인사 방문/동정	24 (35.8%)	19 (33.9%)	17 (50.0%)	9 (16.4%)	15 (41.7%)	24 (64.9%)	108 (37.9%)
	협정/조약 체결	10 (14.9%)	4 (7.1%)	2 (5.9%)	17 (30.9%)	1 (2.8%)	3 (8.1%)	37 (13.0%)
	군사 및 안보	7 (10.5%)	5 (8.9%)	6 (17.6%)	11 (20.0%)	4 (11.1%)	3 (8.1%)	36 (12.6%)
	회의/포럼/행사	7 (10.5%)	9 (16.1%)	1 (2.9%)	0 (0.0%)	1 (2.8%)	2 (5.4%)	20 (7.0%)
	기타	2 (2.9%)	2 (3.6%)	1 (2.9%)	0 (0.0%)	3 (8.3%)	1 (2.7%)	9 (3.2%)
총 계		67	56	34	55	36	37	285

4.2 경제

〈표 8〉을 통해 경제 분야 총 기사 건수는 280건으로 전체 1,200건 대비 23.3%를 차지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0〉에서는 총 280건의 경제 분야 뉴스 기사를 기간별로 다시 보다 상세한 주제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것을 정리하였다.

전체 기간을 통틀어서 투자 및 기업 활동(135건, 48.2%), 상품/제품(37건, 13.2%), 경제 현황 및 동향(35건, 12.5%), 세계 인사 방문/동정(29건, 10.4%), 경제 관련회의/포럼/행사(22건, 7.9%), 경제 관련 협약/협정 체결(11건, 3.9%), 기타(11건, 3.9%)의 순으로 뉴스 기사 비중이 높았다. 서로 다른 국가 간의 경제 협력은 무역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 및 활동이 그 요체라 할 수 있다. 이를 입증하듯 90~94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서는 투자 및 기업 활동에 대한 뉴스 기사 건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10〉 참조).

〈표 8〉에서 언급하였듯이 국가 간의 교류·협력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여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표 10〉에 제시된 분석 결과는 1990년 양국 간 공식 외교 관계 수립 이후 정치 분야와 더불어 경제 분야 협력도 활발히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준다. 즉, 기업의 투자와 생산 활동은 현지의 경제 현황 및 동향 파악, 그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제품의 판매를 위한 마케팅, 그리고 기업 관계자들의 현지 방문 등 인적 교류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표 10〉은 이와 같은 인과관계를 비교적 정확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경제 분야 뉴스 기사 건수가 05~09년 기간의 경우 총 101건으로 그 이전의 기간들에 비해서 매우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직전 기간(00~04년) 총 14건 대비 7배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 이 기간

〈표 10〉 기간별 뉴스 기사 주제별 분류: 경제 분야

(단위: 건)

		90 ~ 94	95 ~ 99	00 ~ 04	05 ~ 09	10 ~ 14	15 ~ 19	총 계
경제	경제 현황 및 동향	10 (30.3%)	6 (23.1%)	5 (35.7%)	6 (5.9%)	4 (7.1%)	4 (8.0%)	35 (12.5%)
	세계 인사 방문/동정	2 (6.1%)	2 (7.7%)	1 (7.1%)	16 (15.8%)	2 (3.6%)	6 (12.0%)	29 (10.4%)
	투자 및 기업 활동	8 (24.2%)	9 (34.6%)	5 (35.7%)	69 (68.3%)	24 (42.9%)	20 (40.0%)	135 (48.2%)
	상품/제품	5 (15.1%)	2 (7.7%)	1 (7.1%)	7 (6.9%)	12 (21.4%)	10 (20.0%)	37 (13.2%)
	협약/협정 체결	2 (6.1%)	1 (3.8%)	0 (0.0%)	0 (0.0%)	2 (3.6%)	6 (12.0%)	11 (3.9%)
	회의/포럼/행사	4 (12.1%)	4 (15.4%)	0 (0.0%)	1 (1.0%)	11 (19.6%)	2 (4.0%)	22 (7.9%)
	기타	2 (6.1%)	2 (7.7%)	2 (14.3%)	2 (2.0%)	1 (1.8%)	2 (4.0%)	11 (3.9%)
총 계	33	26	14	101	56	50	280	

은 앞의 '2.2 경제' 현황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두산중공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이 현지 공장 건설 및 투자 등 본격적으로 체코 진출을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4.3 사회 및 문화

사회 및 문화 분야는 <표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1,200건의 뉴스 기사 중 613건(51.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이다. <표 11>은 사회 및 문화 분야에서 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교류·협력

해 왔는지, 또 그 변화 추이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주제 분야를 세분화 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전체 기간을 통틀어서 스포츠 분야 뉴스 기사가 320건(52.2%)으로 과반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음악(64건, 10.4%), 여행/관광(52건, 8.5%), 사회 이슈(38건, 6.2%)의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주목할 점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로 인한 경제 분야 뉴스 기사가 전체의 50.5%(101건)를 기록하여 사회 및 문화 분야 기사 건수가 44건(22%)에 그친 05~09년 기간을 제외하고는, 사회 및 문화 분

<표 11> 기간별 뉴스 기사 주제별 분류: 사회 및 문화 분야

(단위: 건)

		90 ~ 94	95 ~ 99	00 ~ 04	05 ~ 09	10 ~ 14	15 ~ 19	총 계
사회 및 문화	음악	12 (12.1%)	19 (16.1%)	11 (7.5%)	5 (11.4%)	14 (14.4%)	3 (2.8%)	64 (10.4%)
	연극/공연	6 (6.1%)	6 (5.1%)	4 (2.7%)	0 (0.0%)	7 (7.2%)	1 (0.9%)	24 (3.9%)
	영화	2 (2.0%)	6 (5.1%)	2 (1.4%)	0 (0.0%)	7 (7.2%)	4 (3.7%)	21 (3.4%)
	미술/전시	4 (4.0%)	1 (0.8%)	2 (1.4%)	0 (0.0%)	3 (3.1%)	2 (1.8%)	12 (2.0%)
	문학	0 (0.0%)	7 (5.9%)	5 (3.4%)	5 (11.4%)	7 (7.2%)	4 (3.7%)	28 (4.6%)
	K-팝 및 한류	0 (0.0%)	0 (0.0%)	0 (0.0%)	0 (0.0%)	0 (0.0%)	15 (13.8%)	15 (2.4%)
	여행/관광	0 (0.0%)	0 (0.0%)	7 (4.8%)	4 (9.1%)	18 (18.6%)	23 (21.1%)	52 (8.5%)
	종교	0 (0.0%)	0 (0.0%)	4 (2.7%)	5 (11.4%)	2 (2.1%)	1 (0.9%)	12 (2.0%)
	스포츠	69 (69.7%)	71 (60.2%)	100 (68.5%)	12 (27.3%)	22 (22.7%)	46 (42.2%)	320 (52.2%)
	사회 이슈	3 (3.0%)	6 (5.1%)	8 (5.5%)	8 (18.2%)	9 (9.3%)	4 (3.7%)	38 (6.2%)
	기타	3 (3.0%)	2 (1.7%)	3 (2.1%)	5 (11.4%)	8 (8.2%)	6 (5.5%)	27 (4.4%)
총 계	99	118	146	44	97	109	613	

야 뉴스 기사는 모든 기간에서 50% 전후의 높은 비중을 지속적으로 차지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양국 간 사회 및 문화 분야 교류는 정치 관계 또는 경제 협력의 정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스포츠, 예술을 포함한 사회 및 문화 분야 민간 교류는 정치·경제 분야 협력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치와 경제의 상호 연관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작은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체코는 전통적으로 축구, 야구, 스키를 포함한 동계 올림픽 종목 등 유럽의 스포츠 강국이다. 이를 입증하듯 스포츠 관련 뉴스 기사가 총 320건으로 사회 및 문화 분야 뉴스 기사 총 613건 중 52.2%를 차지하였다. 스포츠와 더불어 체코는 음악, 공연, 문학 등 예술 분야에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체코 국민들이 문화적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대표적 체코 음악가인 스메타나와 드보르작, 체코 문학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카프카와 쿤데라, 교육학의 대가 코메니우스 등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체코 문화·예술계의 저명인사들이다.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음악(64건, 10.4%), 연극/공연(24건, 3.9%), 영화(21건, 3.4%), 미술/전시(12건, 2.0%), 문학(28건, 4.6%) 등 예술 관련 분야의 뉴스 기사가 꾸준히 생산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세부 분야를 예술로 통칭하여 모두 합치면 총 149건으로 320건을 기록한 스포츠 다음으로 많은 건수를 기록하였다.

K-팝 및 한류, 여행/관광 관련 뉴스 기사 건수의 기간별 변화 추이는 최근의 사회·문화적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K-팝 및 한류의 경우, 15~19년 이전의 기간들에서

는 단 1건의 뉴스 기사도 없었으나 이 기간 동안 15건이 보도되었다. 1990년대 말 중화권에서 시작된 한류는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조병철, 심희철 2013). 최근에는 아시아권은 물론이고 북미 지역과 체코를 포함한 유럽권으로도 한류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그 결과가 뉴스 기사 건수에 잘 나타나고 있다.

여행/관광은 K-팝 및 한류와 달리 15~19년 이전의 기간에서도 뉴스 기사 건수가 기록되었으나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체코의 수도 프라하는 2005년 SBS에서 방영된 드라마 '프라하의 연인'을 통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도시이기도 하다. 1990년 공식 외교 관계 수립, 1992년 프라하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 지정, 2000년대 우리 기업의 활발한 체코 진출, 2013년 대한항공의 체코항공 지분 인수 및 프라하 직항 노선 매일 공동운항, 언론 및 미디어를 통한 체코에 대한 소개 등의 영향으로 우리 국민의 체코 관광에 대한 관심이 최근 크게 증대되었다. 그 결과, 2018년 약 42만 명의 우리 국민이 체코를 방문하였으며, <표 11>에 나타난 여행/관광 관련 뉴스 기사 건수의 증가 추세는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4.4 교육

교육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속성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사회 및 문화 분야에 속한다고 할 수도 있으나(이종각 2005), 반대로 교육도 사회 및 문화는 물론 정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교육을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 8〉에서 교육 분야의 뉴스 기사는 총22건으로 전체 1,200건 중 1.8%로 사회 및 문화(613건, 51.1%), 정치(285건, 23.8%), 경제(280건, 23.3%)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1990년 양국 간 공식 외교 관계 수립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분야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교육 분야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표 4〉의 교육 분야 현황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양국 간 유학생 수는 100명 전후에서 증감을 거듭해 왔으며 뚜렷한 증가 또는 확대 추세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하는 실증적 통계이다.

〈표 12〉는 양국 간 교육 분야 교류·협력 변화의 추이를 교육 협력, 연구 협력, 학술대회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교육협력 11건(50%), 학술대회 7건(31.8%), 연구협력 3건(13.6%), 기타 1건(4.6%)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교육 협력의 경우, 10~14년 기간 8건, 15~19년 기간 3건이었으며 그 이전의 기간들에서는 모두 0건이었다. 대부분의 기사는 국내 대학과 체코 대학 간의 교환학생 파견 등 협정 체결에 관한 내

용이었다. 이는, 양국 간의 교육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대학 간 일대일 협정 체결 등을 통한 실질적인 학생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하는 것이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연구 협력, 학술 대회 개최 건수도 매우 저조한바 이에 대한 지원도 양국 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5 분석 결과 요약

‘3.1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에서 설정한 4가지 연구 문제(RQ 1, RQ 2, RQ 3, RQ 4), 즉 주제 분야별(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교육)로 체코에 관한 뉴스 기사의 기간별 증가 추이와 그 내용의 변화를 중심으로 위에서 논의한 분석 결과를 아래에 요약하였다.

첫째, 정치 분야(RQ 1)는 주요 정계 인사 방문/동정, 정치 현안, 협정 체결 등 주요 정치 관련 이벤트 등에 따라 기사 건수의 증감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는 큰 변화 없이 기간별로 최저 34건(17%)에서 최고 67건(33.5%)의 비교

〈표 12〉 기간별 뉴스 기사 주제별 분류: 교육 분야

(단위: 건)

		90 ~ 94	95 ~ 99	00 ~ 04	05 ~ 09	10 ~ 14	15 ~ 19	총 계
교육	교육 협력	0 (0.0%)	0 (0.0%)	0 (0.0%)	0 (0.0%)	8 (72.7%)	3 (75.0%)	11 (50.0%)
	연구 협력	0 (0.0%)	0 (0.0%)	2 (33.3%)	0 (0.0%)	0 (0.0%)	1 (25.0%)	3 (13.6%)
	학술 대회	1 (100.0%)	0 (0.0%)	4 (66.7%)	0 (0.0%)	2 (18.2%)	0 (0.0%)	7 (31.8%)
	기타	0 (0.0%)	0 (0.0%)	0 (0.0%)	0 (0.0%)	1 (9.1%)	0 (0.0%)	1 (4.6%)
총 계		1	0	6	0	11	4	22

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정치 분야 세부 주제에 있어서는 주요 정계 인사/동정과 정치 현안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기간별로 특이할 만한 주제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둘째, 경제 분야(RQ 2) 기사 건수(총280건)는 전체적으로 정치 분야(총285건)와 거의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투자 및 활동, 상품/제품 소개, 경제 현황 및 동향, 재계 인사 방문/동정 등 경제 관련 이벤트 및 소식에 따라 기사 건수의 증감을 보였다. 기간별로는 최저 14건(7%) 최고 101건(50.5%)의 분포를 보여서 정치 분야보다는 그 변동의 폭이 컸음을 알 수 있었다. 기간별 기사 내용의 세부 주제 변화는 일정한 패턴이 관찰되지는 않았으나 투자 및 기업 활동이 기사 건수 및 내용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치와 경제 분야 뉴스 기사 건수는 유기적으로 상호 연동되어 변화되어 왔다고 판단된다.

셋째, 사회 및 문화 분야(RQ 3) 기사 건수는 총613건으로 가장 큰 비중(51.1%)을 차지하였다. 스포츠 관련 기사가 320건으로 과반 이상이었으며 음악, 연극/공연, 영화, 미술/전시 및 문학을 아우르는 예술 관련 기사가 모두 149건(24.3%)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의 분포를 보였다. 뚜렷한 변한 추이가 관찰되지 않았던 정치, 경제 분야와는 달리, 세부 주제 내용에 있어서는 주목할 만한 변화의 추이가 관찰되었다. K-팝 및 한류라는 주제가 15~19년 기간에 새롭게 등장했으며, 여행/관광은 기간별 기사 건수가 최근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교육 분야(RQ 4) 기사 건수는 총22건(1.8%)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대학 간

의 일대일 교류를 통한 교육 협력이 11건으로 50%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학술대회 관련 기사 건수가 7건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기간별로 세부 주제 내용의 변화는 22건이라는 작은 규모의 기사 건수로 인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교육 협력과 관련한 내용의 기사가 최근 두개의 기간(10~14년 8건, 15~19년 3건) 동안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모든 분야 공히 뉴스 기사 건수의 증가와 주제 내용의 변화는 앞의 '2장 현황조사'에서 제시한 분야별 이벤트/사건 등과 대체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결론 및 제언

서로 다른 두 나라 간의 교류 및 협력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신뢰관계가 구축되어질 때 더욱 공고하게 발전해 나아갈 수 있다. 상호 이해를 위해서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1990년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한 체코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실증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1990년 이후 네이버 뉴스를 통해 보도된 체코에 관한 뉴스 기사를 5년 단위로 기간을 나누어서 주제 분야별(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교육)로 기사 건수의 증감과 기사 내용의 변화 추이를 각각의 주제 분야 내에서 소주제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논의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도출하

였다.

첫째, 양국 간 정치 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적 교류를 통한 정치 현안 관련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뉴스 기사 생산 건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군사 및 안보 분야의 협력 확대 모색이 정치 분야 협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분석된다.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주요 인사 방문을 통한 인적 교류와 더불어서 보다 다양한 수단의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치 현안 관련 회의, 포럼, 행사 관련 뉴스 기사 생산 건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이의 활용을 시사해주는 반증이다. 이의 적절한 활용과 강화를 통해서 정치 분야 협력 증진을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둘째, 양국 간 경제 분야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의 직접 투자 및 생산·영업 활동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의 확대를 통해 이 분야 협력 증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수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 분야 협력은 정치 분야와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에 정치 분야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세부 주제에 있어서 경제 관련 협약/협정 체결, 회의/포럼/행사 부문의 뉴스 기사 건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것은 시사해주는 바가 있다. 기업의 투자 및 생산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경제 관련 협약/협정의 체결, 양국 간 경제 현황 및 이슈에 관한 회의, 포럼, 행사 등의 보다 활발한 개최를 통해서 이 분야 협력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체코 원전사업 수주를 위한 노력이

하나의 예이다.

셋째, 양국 간 사회 및 문화 분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서는 기존 상대적으로 교류가 활발했던 스포츠, 예술을 통한 교류의 지속과 더불어서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한 K-팝 및 한류, 여행/관광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K-팝 및 한류는 우리 문화에 대한 체코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여행/관광은 체코 문화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해를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상호 호혜적이다. K-팝 및 한류를 통해서 연간 10,000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체코인들의 한국 여행 및 관광에 대한 관심 증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종교 관련 뉴스 기사 건수가 총12건(2.0%)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사실은 향후 이 분야 교류 확대의 여지가 크다는 것의 반증이다.

넷째, 교육 분야는 관련 기사 건수가 총22건으로 전체 1,200건 중 1.8%의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결과는 양국 간 교육 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규 학위 과정 유학생 확대를 포함한 교육 협력, 공동연구와 같은 연구자들 간의 연구 협력, 연구 성과 공유 및 인적 교류를 위한 학술대회 등 총체적인 교육 관련 활동의 촉진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앞의 분석 결과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대학 간의 일대일 협정체결과 관련한 교육 협력 기사 건수가 전체 22건 중 11건으로 50%의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은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즉, 우리 대학과 체코 대학 간의 교육 및 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보다 활발한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정규 학위 과정, 어학연수, 장·단기 연수 및 훈련, 교환학생 등 보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활

등을 개발하여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유학생 수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겠다. 또한, 양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캠프, k-팝 체험 등의 활동 활성화는 양국 청소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나아가 향후 교육 협력 확대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와 함께, 양국 연구자들 간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 지원, 산·학 협력 연구 활동, 연구 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워크숍, 포럼, 학술대회 개최를 확대함으로써 현재 상대적으로 미진한 교육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 활동의 장려와 동기 부여를 위해서는 장학금 지원, R&D 투자 등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교육 등을 망라한 모든 분야의 총체적이고 균형 잡힌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질 때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고한 협력관계 구축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정치는 상호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여 다른 분야의 협력을 지원하고, 경제는 무역량 증대를 통해 상호 간 물질 교류 및 인적교류를 촉진하게 된다. 또한, 사회 및 문화는 서로의 전통, 관습 및 가치관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여 상호 친밀감 및 신뢰를 높이고, 교육은 배움을 통해 다른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바탕이 된다. 이렇듯,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교육 분야의 균형 잡힌 협력을 통한 관계 발전은 궁극적으로 양국 간의 교류를 전반적으로 활성화 시킬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와 체코 간의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교육 분야에 대한 이해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네이버 뉴스 기사 분석을 통해, 양국 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시사

점 및 실증적인 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도서관의 경우(특히, 공공도서관) 그 기능에 비추어서 사회·문화적 기관이라 할 수 있으나 많은 경우 교육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의 뉴스 기사 분석에서 도서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사는 없었으나 문학 부문에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통한 체코 어린이 작가 및 동화책 소개에 관한 기사는 2건 이 있었다. 이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을 포함한 지역 공공도서관, 나아가 국회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사회·문화적 기관으로서 도서관이 양국 간의 협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는, 사회·문화적 기관으로서 도서관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책무이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분석 대상 뉴스 기사의 양적 제한, 선행 연구 부재를 들 수 있다. 1990년부터 2019년 3월말 까지라는 비교적 긴 기간(약30년) 동안의 뉴스 기사(총187,074)를 대상으로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작업 분석을 수행하였기에 기간별로 200건의 뉴스 기사로 제한하여 총1,200건을 분석하였다. 관련이 없거나 적은 기사, 중복된 기사, 내용의 차이가 없는 유사한 기사는 제외하고 분석하였기에 기간별로 처음 40페이지(페이지당 10건) 전후의 검색 결과를 분석하였다. 적합성 순서로 검색 결과를 배열하는 검색엔진의 특성상 뒤로 갈수록 중복된(또는 유사한) 기사, 체코와 무관한(또는 관련이 매우 적은) 기사의 출현 빈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기간별로 200건 보다 더 많은 수의 기사 또는 전체 기사를 대상으로 분석한다면 이 연구의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는 분석 결

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으리라 판단된다.

두 번째 제한점으로는 포털 뉴스 기사의 키워드 분석을 통한 도서관과 같은 특정 분야의 미디어 커버리지를 분석한 연구(Her 1997; Kim 2011; Kim 2015; Cho 2018)는 적게나마 선행 연구가 있었으나, 이 연구의 핵심 주제인 국가 간의 관계 분석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선행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체코의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교육 분야의 현황을 비교적 자세히 조사하여 '2. 현황 조사'에서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면서 이 연구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우리나라 포털 뉴스에 나타난 체코 관련 기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반대

로, 체코의 언론 보도에 나타난 한국 관련 뉴스 기사를 분석하여 체코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과 그 변화 추이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인도, 중국, 멕시코 등 우리나라가 체코와 마찬가지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유사한 국가들에 대한 뉴스 기사 분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한 연구 결과의 교차 비교·분석은 국가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서 매우 유용하리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언론 보도를 통한 뉴스 기사 분석과 더불어 최근 트렌드인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서 이루어지는 댓글, 해시태그 등 키워드 분석을 통한 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 연구 또한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유용한 연구가 되리라 믿는다.

참 고 문 헌

- [1] 교육부 홈페이지. [online] [cited 2019. 4. 15.] <<https://www.moe.go.kr/>>
- [2] 김혜경. 2011. 『도서관에 대한 사회인식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3] 김선화. 2015. 『신문기사에 나타난 작은도서관의 역할』.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4] 도종윤. 2016. 동반자관계(Partnership) 외교연구: 한국-EU, 한국-러시아, 한국-중국 문서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1-23. 제주평화연구원. [online] [cited 2019. 4. 15.] <<http://www.jpi.or.kr/skyboard/download.sky?fid=5287&gid=5378&code=research>>
- [5] 서울신문. 2010.01.27. 전략적 동반자 관계란. [online] [cited 2019. 4. 15.]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127005009>>
- [6] 외교부 홈페이지. [online] [cited 2019. 4. 15.] <http://www.mofa.go.kr/eng/nation/m_4902/view.do?seq=85>
- [7] 조병철, 심희철. 2013. K-POP 한류의 성공요인 분석과 한류 지속화 방안 연구: 스마트 미디어 기반 실감콘텐츠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5): 90-102.
- [8] 주 체코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online] [cited 2019. 4. 15.]

- 〈<http://overseas.mofa.go.kr/cz-ko/index.do>〉
- [9]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online] [cited 2019. 4. 15.] 〈<http://kto.visitkorea.or.kr/kor.kto>〉
- [10]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online] [cited 2019. 4. 15.] 〈<http://kita.org/>〉
- [11] 허선. 1997. 우리나라 신문에 비친 도서관상. 『도서관문화』, 38(1): 3-19.
- [12] Cambridge Dictionary. 2019. Cambridge University Press. [online] [cited 2019. 4. 15.] 〈<https://dictionary.cambridge.org/ko/>〉
- [13] Czech Tourism Organization(Czech Republic Land of Stories). [online] [cited 2019. 4. 15.] 〈<https://www.czechtourism.com/home/>〉
- [14] Cho, J. 2018. "The trends of media coverage about libraries in Korea: Us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portal news." *International Journal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Studies (LIBRI)*, 68(4): 291-301.
- [15] Jary, D. and Jary, J. 1991. *The HarperCollins Dictionary of Sociology*. New York: Harper Perennial, 101.
- [16] Merriam-Webster's Unabridged Dictionary. 2019. [online] [cited 2019. 4. 15.]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society>〉
- [17] Visegrad Group, 2019. [online] [cited 2019. 4. 15.] 〈<http://www.visegradgroup.eu/about>〉
- [18] Williams, R. 1988.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2nd Ed., Fourth Estate Ltd., 87-93.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Ministry of Education. [online] [cited 2019. 4. 15.] 〈<https://www.moe.go.kr/>〉
- [2] Kim, H. K. 2011. *A study on the social recognition of library*.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 [3] Kim, S. H. 2015. *The role of small libraries introduced in news article*. Masters'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4] Do, J. 2016. *A study of partnerships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pretation on diplomatic documents between S. Korea and EU, Russia, and China*. Jeju Peace Institute, Technical Report: 1-23. [online] [cited 2019. 4. 15.] 〈<http://www.jpi.or.kr/skyboard/download.sky?fid=5287&gid=5378&code=research>〉
- [5] www.seoul.co.kr. 2010.01.27. What is the strategic partnership? [online] [cited 2019. 4. 15.]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127005009>〉

- [6]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nline] [cited 2019. 4. 15.]
〈http://www.mofa.go.kr/eng/nation/m_4902/view.do?seq=85〉
- [7] Cho, B. and Sim, H. 2013. "Success factor analysis of K-POP and a study on sustainable Korean wave: Focus on smart media based on realistic contents."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s Association*, 13(5): 90-102.
- [8]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zech Republic,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9. [online] [cited 2019. 4. 15.] 〈<http://overseas.mofa.go.kr/cz-ko/index.do>〉
- [9] Korean Tourism Organization. [online] [cited 2019. 4. 15.]
〈<http://kto.visitkorea.or.kr/kor.kto>〉
- [10]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2019. Retrieved from 〈<http://kita.org/>〉
- [11] Her, S. 1997. "Libraries in the Korean newspaper." *KLA Journal*, 38(1): 3-19.